

특별취재

정읍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열려

정읍시는 지난 15일 2016년 하반기 정읍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위원장 조기만, 전 동신초 교장)를 가졌다.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위원회에서는 업무 보고, 도서관장 관리 심의와 함께 도서관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정읍시립도서관은 중앙도서관, 신태인 도서관, 기적도서관 및 13개 작은도서관이 있으며, 현재 34만천여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

또 100여개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800여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올해 주요 사업으로 영창아파트 인근에 주민 생활과 가까운 도서관 문화 형성 등을 위한 '책향기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을 추진, 내년 4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내년에는 노후화된 도서관리 서버와 전산시스템 교체 등을 통해 도서관 운영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한 장의 회원증으로 전국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책이름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제 도서관은 책을 빌리고 읽는 공간을 넘어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 많은 시민이 도서관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전식 시장이 16일 열린 제205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했다.



이전식 시장이 16일 열린 제205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했다.

“새만금 중심도시 역할 주도”

김제시 이견식 시장, 내년 예산안 시의회 시정연설에서 시정방향과 재정규모 설명

이견식 시장이 16일 열린 제205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지금까지 새만금중심도시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온 김제가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 건설을 위한 발전전략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가속화하는 등 비상과 도약의 호기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내년도 시정 슬로건을 역동하는 김제, 세계로 미래로! 라고 정하고, 시정 운영방향을 새만금·해양중심도시의 주도적 역할 수행, 신산업기반 확충으로 탄탄한 지역경제 견인, 종자산업과 첨단

농업으로 농생명 허브 조성, 김제의 흥이 담긴 역사·문화·관광도시 육성, 공감형 맞춤형복지로 차별없는 행복도시 실현, 안전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 기반 구축, 시민의 역할을 키워주는 열린시정 구현 등 7개 분야로 제시했다.

특히 급변하는 대북·국제정세와 내년말 신정부 출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새만금개발을 촉진시키고 김제의 비전을 대선공약 등 정부정책에 반영, 실현하는 등 김제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김제시 내년 재정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5,224억원보다 805억원

(15.4%)이 증가한 6,029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373억원 특별회계는 656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이 중 복지과 농업분야 예산이 2,556억원으로 42.3%를 차지했다.

이견식 김제시장은 “2017년도 예산은 편성규모는 증가했으나 가용재원은 부족한 여건으로 재정의 건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으며, 체무감축을 위한 지방채 조기상환과 쌀값 하락에 따른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농림분야에 특히 188억원을 증액했다”면서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부안군의회(의장 오세웅)는 1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9일간 부안군정 전반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잘못 추진된 업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제시를 통해 행정의 변화를 주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기태)는 방대한 자료 수집과 위원들의 업무연찬으로 자료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내실 있고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행정사무감사특별위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무리한 설계변경은 없었는지, 각종 사업의 공사발주 시 우리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물품·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외업체의 물품·장비가 많이 계약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다.

한편 행정사무감사특별위는 오는 12월 16일 제9차 본회의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집행부에 이송한 후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 개최

김제시의회(의장 나병문)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제205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3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본 예산안,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하고 시정질문 및 답변을 진행한다.

특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재)는 시정질문에 대한

9월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12월 2에 시정질문 및 답변, 12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9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3회추경 및 2017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한 후, 마지막으로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특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재)는 시정질문에 대한

자료수집과 신중한 검토로 올해 시정을 돌아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병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6년을 정리하고 2017년을 준비하는 시기에 이번 정례회를 개최함에 뜻 깊게 생각하며, 한 해 동안 김제시의회에 보내준 김제시민의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하며 내년에는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군 복지허브화 사업 주민 호평속 ‘순항’

칸막이 없는 민관 협력 통합맞춤형서비스 큰 호응

부안군은 지난 6월 22일 부안읍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먼저 찾아 개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허브화사업을 추진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등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안군 복지허브화사업은 5개월의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부안을 맞춤형복지팀과 3개(부안종합사회복지관, 부안군사회복지협의회, 부안군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통합사례관리, 복지자원배분 사업 등 업무를 다양하게 공유함으로써 서비스 중복·누락 방지, 지역의 다양한 복지유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또 안전나눔 업무협약을 통해 독거

노인 청소년 등 10명에게 맞춤형안경을 지원하고 주거환경개선, 이·미용 서비스 물품배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능기부 지원을 발굴해 필요대상자에게 연계하는 등 통합사례관리 377구, 자원발굴 및 서비스지원연계 487건 등 다양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가정방문 상담 180건, 사각지대 발굴연계 76건으로 현장 곳곳을 누빈 결과 작년 대비 71% 증가한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실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사춘기 소녀 은모(14·여) 학생은 부모와 함께 방을 쓰는 열악한 주거상황 및 학습여건으로 곤경에 처해 있었으나 부안읍 맞춤형복지팀, 부안종합사회복지관, 부안군사회복지협의회, 해당화 로타리봉사단체가 협력해 주거환경개

정읍시, 내년도 예산확보 총력

목표액 모두 5천억

김생기 시장이 16일 국회를 방문하여 내년도 국가예산 중 정읍 관련 사업의 삭감 방지와 추가 반영을 위해 분주한 행보를 펼쳤다.

정읍시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목표액은 모두 5천억원이다.

이중 2017년도 요구액은 3천780억원(중점관리 150개 사업)으로, 정부 예산에 2천918억원(114개 사업)이 반영됐고, 농업과 복지 등 일반관리 국비보조사업이 2천억원이다.

김생기 시장은 “내년도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회예산 심사 단계에서 80억원 이상을 증액 확보해야 한다”며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시장은 당일 새벽 6시 정읍출발 ktx를 타고 국회에 도착하여 예산심의회가 시작되기 전인 10시 이전, 그리고 회의 중간 시간을 이용

지평선학당 인재등용문 역할 ‘톡톡’

알찬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수시에서 높은 대학 합격률

김제지역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자리잡고 있는 김제시립지평선학당(이사장 이견식)에서 운영하는 지평선학당이 김제 백년미래를 이끌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명품교육의 산실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담당하고 있다.

지평선학당은 다양하고 다변화되는 입시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한층 업그레이드해 연초부터 지금까지 방과후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2017학년 대입 수시전형에서 장서아(덕암고3) 학생의 이화여대에 수시 최종 합격을 비롯해 김진주(구서고3) 학생 등 28명의 지평선학당 수강생이 합격을 기다리고 있는 정시에서도 높은 합격률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3년간(2014년부터 2016학년도) 93명의 수강생 중 35명의 학생이 서울대를 비롯한 연세대, 카이스트, 성균관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에 합격했고 58명이 전북대 등 지방우수대학에 합격해 지평선학당이 지역 인재육성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지평선학당은 공교육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충하기 위해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대학입시에서 수도권유명대학에 대거 합격하는 성과와 함께 관내 상위권 중학생들의 지역 고등학교의 진학률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지평선학당은 김제지역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교육환경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토론, 공동과제연구 등을 진행했고, 보충이 필요한 일 부과목은 심화학습 시간을 마련하는 등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 운영에 힘써왔고, 교육기관과 학사 및 입시에 대한 정보교환으로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앞장서 인재 양성의 등용문으로 거듭나고 있다.

한편 김제시립지평선학당은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고의 규모인 222억 원의 장학기금을 만들어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내 고장 학교보내기사업’ 격려금 지급과 우수학생 인근도시 유학을 막고 지역학교로 유인하기 위한 ‘과감한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여 2008년 63.5% 이던 관내 고교진학률이 올해에는 70%로 상승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김제시립지평선학당은 글로벌 인재양성의 요람이라는 자부심과 다양하고 파격적인 장학 사업으로 인근 도시로의 인구 유출을 막고 우수한 지역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한층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을 또 다시 준비하고 있어 지평선학당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 할지 기대가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생기 시장이 16일 국회를 방문하여 내년도 국가예산 중 정읍 관련 사업의 삭감 방지와 추가 반영을 위해 분주한 행보를 펼쳤다.

김제시 종자생산 전문가 육성 위한 단기교육 개강식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에서는 민간육종연구단지와 종자생명연구단지에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및 기초인력 양성을 위한 종자생산 단기 교육 과정을 2차에 걸쳐 성황리에 마치고 농업의 혁신과 변화를 선도할 정예인력 양성을 위한 3차 과정을 16일 농업기술센터 상록관에서 교육생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강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했다.

이날 개강식에서는 교육생들의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고 농업기술센터

김병철 과장의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현황에 대한 특강과 국립종자원 소은희 연구관의 품종보호제도 설명 및 종자제도 이해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 과정은 11월 16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주 월요일~목요일까지 3주간 40시간에 걸쳐 종자 생산의 실질적인 이론 강의와 현장학습 병행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된다. 종자생산 단기 교육 과정은 기본교육으로 종자시정현황, 종자사업현황 교양교육으로 편성되어 있

며 작물교육으로 작물생리 및 재배, 병해충방제, 육종, 토양관리 등으로 진행되며 종묘업체 현장교육도 병행하여 실시된다.

김병철 농촌지원과장은 이번까지 3차 교육을 통해서 종자산업 특구와 민간육종연구단지의 미래 종자 산업을 이끌어 나갈 선도인력 육성을 위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설명하고 교육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내년도 예산확보 총력

목표액 모두 5천억

김생기 시장이 16일 국회를 방문하여 내년도 국가예산 중 정읍 관련 사업의 삭감 방지와 추가 반영을 위해 분주한 행보를 펼쳤다.

정읍시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목표액은 모두 5천억원이다.

이중 2017년도 요구액은 3천780억원(중점관리 150개 사업)으로, 정부 예산에 2천918억원(114개 사업)이 반영됐고, 농업과 복지 등 일반관리 국비보조사업이 2천억원이다.

김생기 시장은 “내년도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회예산 심사 단계에서 80억원 이상을 증액 확보해야 한다”며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시장은 당일 새벽 6시 정읍출발 ktx를 타고 국회에 도착하여 예산심의회가 시작되기 전인 10시 이전, 그리고 회의 중간 시간을 이용

하여 관계자들을 만났다.

김 시장은 김현미 예결위원장과 기재부 2차관,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 김태년 간사, 김광수 의원, 이개호 의원, 박홍근 의원 등의 예결위 예산소위원회, 을 면담하여 정읍 관련 미반영 9개 사업의 추가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한편 이날 건의한 9개 사업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공원 조성(404억원) ▲정읍경찰서 신축이전(350억원) ▲국립전북기상과학관 기상인체학교육관 시설확충사업(84억원) ▲화천교 구원 적북분원 건립(280억원) ▲방사선 백신 특수시설 확충사업(150억원) ▲내장산 국립공원 탐방로 구름다리 조성(20억원) ▲이온화에너지이용 축산부산물물의 활용기술개발(170억원) ▲농축산물 미생물제품 인증 지원사업(30억원) ▲재공구 매립시설 조성 공사(89억원) 등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김제시 국정시책 합동평가회

김제시(시장 이견식)는 2017년도 국정시책 합동평가 최우수 등급을 목표로 16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이승복 부시장 주재로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가졌다.

2016년도 실적을 평가하는 2017년도 합동평가 지표를 향상 극대화하기 위

해 열린 이번 보고회는 10월말 기준으로 자원봉사참여율, 수급자 발굴 등 노력도에 따라 실적향상이 가능한 34개 지표를 선별하고 집중 토의했다.

김제시는 워크숍과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정성평가 우수사례를 29건 발굴하는 등 합동평가 지표 내실화를 다져왔다.

/김제=곽노태 기자